

우악은언 아을막다



1회용품 안쓰기 정책 토론회 (2019. 6. 18.)

— 제10회 세계 1회용 플라스틱 안쓰는 날을 맞이하여 —

7.3일은 전 세계 1회용플라스틱 안 쓰는 날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전 지구촌 곳곳에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오늘 모인단체들은 2019년 1회용플라스틱 안 쓰는 날 주제로 장례식장 1회용플라스틱용기 사용 중단을 통해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만들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1회용플라스틱용기 꼭 사용 해야만 하나요? 조사에 따르면 장례식장 1곳당 연간 밥·국그릇은 72만개, 접시류는 144만개를사용, 전국장례식장에서 연간 2억천6백만개의 1회용접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접시는 합성수지접시 사용량의 20%로 추정됩니다. 캐나다는 간단한 다과 제공으로, 가까운 일본은 다회용기에 초밥 도사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장례식장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행법인 재활용촉진법은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을 모두 갖춘 장례식장만 1회용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척 및 조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장례식장이면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히려 장례식장내 1회용 용기 사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이 비용을 많이 들이고 1회용품도 사용하지 못하는 데 세척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겠습니까? 이렇듯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법으로 인해 전국 장례식장 90% 이상은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례식장은 1회용품 반입금지를 통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1회용품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용된 1회용품은 분리배출되지 않고 쓰레기로 가게 됩니다. 현재처럼 장례식장 1회용플라스틱 사용을 방치한다면 쓰레기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정부, 지자체, 장례식장, 시민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1회용 안쓰는 장례문화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제주도 전역 장례식장, 서울 보라매병원, 수원 연화장, 창원 시립상복공원, 순천 성가롤로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다회용기로 음식을 제공하여 장례식 문화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전국적으로 1회용품 안 쓰는 장례식장 확산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 행동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장 1회용품 안쓰기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은 정부, 지자체, 장례식장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빠른 시일 내 장례식장내 모든 1회용품 용기사용을 금지하는 재활용촉진법을 개정하고 시행하라.

둘. 세척 및 조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장례식장은 식음료 제공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조례 제·개정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례식장 1회용품 용기사용 금지를 시행하라.

둘. 장례식장내 다회식기 사용 확산을 위해 지역내 다회용식기 임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라.

셋.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장례식장내 세척 및 조리시설을 지원하라.

장례식장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모든 장례식장은 조문객 음식제공시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아닌 다회용 식기를 사용하라.

둘. 음식제공시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서 세척 및 조리시설을 설치하라.

셋.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1회용품 반입을 중단하라.

2019년 7월 2일

전남환경운동연합(목포, 광양, 고흥보성, 순천, 여수, 장흥),
목포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목포여성의전화,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녹색목포21협의회,
미디어협동조합국민TV목포지역협의회,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무순)



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님께!

글 / 홍세영 (신입회원/회원확대특별위원회 위원)

저는 2019년 목포 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 새롭게 가입한 회원 홍세영입니다. 가입과 동시에 회원확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내기 회원이기도 한 제가 소식을 통해 편지글로 회원님들을 찾아뵙게 되어 가슴 벅차기도 합니다.

이제 장마철도 지나가고 우려 했던 태풍도 목포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녹음이 짙어가는 산과 들을 찾아 휴가를 보내는 시기가 왔습니다.

지구의 벗인 환경운동연합 회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아름다운 강산을 벗 삼아 지낼 수 있어서 저로서는 더욱 의미가 있고 행복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생명의 땅을 지켜 오신 회원 여러분과 함께 현재 목포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도 소중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목포환경운동연합이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구자의 길을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해년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나고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어 어르신과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자연발생적인 요인보다 이익에만 급급하여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본주의에 의한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미세먼지를 완전히 해소 할 수는 없지만 저와 회원님들의 관심만 있다면 줄일 수도, 예방할 수도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쾌적한 환경을 바꾸는 것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민들의 몫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국민을 위해 투자하고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치 하겠다는 것은 선거철만 사용되는 선언일 뿐 진정한 삶의 질을 바꾸고 요구하며 바꾸어 나간 것은 다름 아닌 시민들이었습니다.

지난 촛불혁명에서 확인 하였듯이 바람에 나약한 촛불하나로 시작하여 거대한 저항의 불씨로 타올라 정권을 바꾸었습니다.

관망은 결코 변화를 가져올 수 없지만 참여와 실천은 곧 성과로 남는다는 것은 선언적인 말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고 확인하고 있기에 저는 이제 당당하게 모든 회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회원 배가운동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낼 것이며 도와주실거라 믿습니다.

회원여러분! 모든 회원님들의 회원배가운동 참여는 또 다른 불길이 되어 우리들의 삶을 쾌적하고 쾌청하게 하고자 하는 환경운동의 들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님들!

다음은 제가 환경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변을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1회용 물티슈, 비닐장갑, 포장재, 종이컵, 생수병, 1회용 라이터 그리고 배달음식 포장재, 테이크 아웃 음료 등 내가 가는 식당에 널려 있는 1회용품이 편리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조금은 번거롭지만 내 삶에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운동에 지금 당장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막혀있는 물길이 되고 물결이 되는 목포환경운동연합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참여하고 실천으로 옮긴다면 흑사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 올 것이며 지역민들과 함께 녹색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늘 변함없이 아껴주신 환경운동연합 회원님 여러분!

목포환경운동연합은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목포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절박함을 인식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미래 발전전망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회원 배가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나약합니다. 둘이면 힘이 보태지고 여럿이 함께라면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기 다 립 니 다

회원들의 자유로운 글(수필, 시, 사설, 축하글 등)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어드립니다.



연

- 03일(금) 전국회원확대워크숍(대전환경운동연합)
- 04일(토) 환경동아리 교육_향도여중(환경운동연합 3층 교육실)
- 07일(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목포지부 집행위원회 / 전라남도 교육참여위원회 준비회의
- 08일(수) 5.18민중항쟁 39주년 목포행사위원회(YMCA)
- 09일(목) 목포시민사회 소통과 연대(가) 준비회의(YMCA) / 회원확대 특별위원회 2차 회의(환경운동연합)
- 10일(금)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서울역사박물관) / 5월행사위원회 대표자회의(YMCA)
/ 장용노동자상 건립회의(전남도의회)
- 11일(토) 회원 ·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지역 생태탐사(네번째_5월 사적지)
- 13일(월) 인권포럼 기획 강좌(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 14일(화) 건설노조 전남서부토목건축지회 지지 방문 /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 전남문화제(목포역)
- 15일(수) 장례식장 일회용품 안쓰기 특별위원회 선진지 방문(순천성가롤로병원장례식장, 무주군보건의료원)
/ 환경의날 준비회의 2차(카톨릭 문화회관)
- 17일(금) 민선7 정책실현을 위한 목포시민사회네트워크(전남여성장애인연대)
- 18일(토)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식(목포역)
- 19일(일) 세월호 부스 지킴이
- 20일(월) 제215차 집행위원회/서부유치원 친환경건강학교 컨설팅
- 21일(화) 회원확대 관련 삼호중공업 방문
- 22일(수) 자원순환 빈용기 조사 / 호남방송 이슈토크 녹화(도시공원 일몰제)
/ 민선7기 정책실현 목포시민사회네트워크 토론회(목포시의회)
- 27일(월) 장례식장 1회용품 대책위(토론회 개최관련 논의)
- 28일(화) 해안쓰레기 모니터링(해남 목동리, 진도 하조도) / 인권포럼회의 / 회원확대 홍보_삼호중공업 대의원대회
- 29일(수) 망운초등학교 컨설팅_친환경 건강학교 만들기
- 30일(목) 회원확대 홍보_KC노동자 대상 / 해인여고 환경교육_김경완 집행위원
- 31일(금) 해남 해오름 유치원 친환경건강학교 컨설팅 / 들꽃 월례회의

· 회원 ·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지역 생태탐사(네번째)



· 민선7기 정책실현 목포시민사회네트워크 토론회(목포시의회)



· 5.18민중항쟁 39주년 기념식(목포역)



· 장례식장 일회용품 안쓰기 특별위원회 선진지 방문(순천 성가롤로병원 장례식장)



- 01일(토) 강하구위원회 환경시설 탐방_북항하수처리장
- 03일(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목포지회 대표자회의
- 04일(화) 환경의날 준비회의 3차(카톨릭 문화회관)
- 05일(수) 세월호잊지않기 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 집행
- 08일(토) 민족민주 역사탐방_암태도(113명 참여) /세계환경의 날 기념 환경한마당(산정농공단지)
- 10일(월) 3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문화제
- 11일(화) 장례식장 1회용품 대책위 회의
- 12일(수) 에너지시민연대 기획회의(서울) /오월강연회 참여
- 13일(목) 회원확대 특별위원회 3차 회의(환경운동연합)
- 15일(토) 615기념행사(평화광장)
- 17일(월) 민선7기 네트워크 시장면담
- 18일(화) 장례식장1회용품 안쓰기 정책 토론회 (전남도의회)
- 19일(수) 팽목항 폐기석탄재 매립 반대 연대활동(서울 청와대, 당진 충남발전소)
- 21일(금) 전남환경교육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 (순천대학교)
- 23일(일) 세월호 부스지킴이(종일)
- 24일(월) 창립기념일 관련 집행위 점심 식사
- 25일(화) 자원순환 관련 워크숍(대전환경연)
- 26일(수) 세월호 집행위 / 광주환경연 30주년 참여 /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주민설명회(청호중)
- 27일(목) 목원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주민공모사업 발표회(시청)
- 29일(토) 강하천살리기 조사사업(1차_나주 노안)

· 민족민주 역사 인물전(오거리문화센터)



· 장례식장1회용품 안쓰기 정책 토론회



· 32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문화제



· 강하천살리기 조사사업(2차_광주 서창)



6월

(유)서남환경/(유)인동기업/(유)일우산업/(주)달빛언덕/(주)보해양조/(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더오래플/목포대성신탁/우진건설/특허사무소 다임/해바라기치과의원/감의업(잠미선)/강구일/강대화/강덕수/강동호/강명근/강석원/강영규/강재석/강종량/강창원/강철수/강해정/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광현/고성철/고윤혁/곽신영/곽재구/국순천/권가별/권수한/김가영/김가영/김경미/김경원/김공경/김광미/김광호/김귀영/김근순/김기봉/김나영/김대중/김도관/김도형/김동욱/김명숙/김명중/김명진/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근/김민지/김병욱/김상순/김상훈/김상훈변호사/김선남/김성길/김성륜/김성희/김수린/김숙자/김순영/김시연/김애자/김영남/김영식/김영운/김영재/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옥/김옥미/김완석/김용구/김용임/김용진/김용기/김원이/김유현/김윤임/김은미/김인순/김일용/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종국/김주재/김지숙/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훈/김철주/김탁/김태근/김태수/김태웅/김판삼/김해성/김해연/김현근/김현숙1/김현숙2/김현정/김현주/김형기/김형애/김홍안/김화영/김환석/나광봉/나양명/나천귀/남명숙/남주영/노애란/류미현/류은경/마홍식/모원중/무관/문경진/문원규/문철주/문호/민경관/박갑수/박경서/박경양/박금단/박기남/박기성/박기정/박기호/박대성/박동구/박동환/박미덕/박미옥(박주익)/박미정/박민창/박병구/박서근/박성영/박성욱/박성원/박성현/박수현/박수미/박영운/박용일/박용호/박원석/박유정/박유진/박윤길/박은희/박재신/박정록/박창선/박종섭/박종위/박지현/박찬우/박창수/박창우/박천웅/박철수/박필수/박한진/박현/박현경/박현숙/박혜수/박희진/박희성/배동희/배서영/백동진/백재봉/변재영/봉형구/서병관/서연순/서정/서정만/서한배/설지연/성보석/성상훈/소복례/손벽리/손봉현/손철주/손현/송두호/송영미/송원천/송정미/신경희/신동영/신현령/신현인/심우엽/안혜영/양덕수/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창숙/양현주/양환/양효식/염미순/염송주/오경섭/오미선/오숙향/오승원/오영출/오왕근/오재록/오하늘/오현주/위준철/유대홍/유영순/유영업/유영창/유원석/유은숙/유지원/유효진/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미/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원희/윤종인/이경매/이경석/이경숙/이경아/이경택/이광봉/이기식/이내홍/이동훈/이명숙/이명희/이미순/이봉섭/이상엽/이상환/이승환/이수/이승용/이승우/이승환/이승환/이승희/이용기/이용자/이용철/이우주/이원기/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남/이정식/이종환/이종훈/이준하/이지우/이지현/이창일/이창현/이학승/이현승/이현인/이현정/이현진/이형광/이형완/이화덕/임경숙/임성진/임은아/임지현/임진욱/임창욱/임혁/장관호/장근진/장동춘(박민아)/장영미/장이주/장이진/장이현/장재연/장지은/장진실/전경남/전경란/전상보/전성열/전용원/전준수/전형숙/정기배/정고운/정관용/정규정/정기심/정동욱/정성우/정수민/정순용/정승원/정연수/정연우/정연희/정영호/정윤정/정인숙/정일/정일승/정재근/정중삼/정지범/정창권/정현찬/정효준/제갈경희/조경민/조미정/조상현/조선희/조애련/조애순/조영인/조옥현/조완우/조원기/조은일/조혜향/조호빈/진선우/진지연/차용만/차용훈/채희준/천정우/최경만/최국진/최규광/최명숙/최명식/최비호/최석원/최선국/최성국/최송주/최송춘/최승희/최영섭/최예화/최만수/최은규/최은기/최은녕/최은주/최이문/최정관/최정삼/최정훈/최지우/최진상/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화녕/최환석/하영성/한봉철/한양규/한은섭/한인숙/한철준/하진홍/현인숙/홍갑석/홍광복/홍선기/홍성혁/홍택용/황민수/황순진/황형수/황희미

| 목포환경운동연합 6월 결산보고 |

수 입	
항 목	금 액
회 비	개인회비 5,020,000
	단체회비 520,000
소 계	5,540,000
사업수입	150,000
후원금	180,000
기타수익	290,000
이자수익	1,645
[후원금]	
• 후원회비 15만원	
• 정윤정 3만원	
[사업수익]	
• 녹색연구회 광고비(5만원)	
• 신안건정 광고비(5만원)	
• 유니네 농장 광고비(5만원)	
[기타수익]	
• 일자리 안정자금 29만원	
당월수입금	6,161,645
전월이월금	869,389
합 계	7,031,034

지 출	
항 목	금 액
사 업 비	교육사업 108000
	조사연구 0
	홍 보 비 100000
	행 사 비 0
	연대사업 495,610
소 계	703,610
회 의 비	총 회 비 0
	위원회비 238,800
소 계	729,000
인 건 비	급 여 3,560,650
	복리후생비 822,930
	퇴직적립금 315,000
소 계	238,100
업 무 추 진 비	출 장 비 175,900
	활 동 비 110,000
소 계	238,100
사 무 관 리 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0
	도서인쇄비 18,000
	통신광열비 194,500
소 계	43,600
소 계	6,822,310
기 타	환 경 기 금 100,000
	제세공과금 0
	보 험 료 133,400
	지급 수수료 86,260
당월지출금	6,502,650
통장 잔액	528,384
합 계	7,031,034



EBS 하나뿐인 지구

플라스틱 인류 총 69분(1story/약 34분) | 전체관람가

#_1 플라스틱의 여행

100여 년 전 인간은 신이 만들지 못한 놀라운 물질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 있고 저렴하면서도 튼튼한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은 자연물질들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문명의 발달과 물질적 풍요, 현대 의학의 발전 등 인류에게 많은 것을 선물했다. 그렇다면 쓰임을 다한 플라스틱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일부는 가벼운 특징 때문에 하천과 강을 따라 흘러가다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된다. 자연분해가 거의 불가능한 플라스틱은 해류를 타고 태평양 한가운데로 모여들어 마치 섬과 같은 형태로 한반도의 7배에 달하는 플라스틱 거대 쓰레기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바다의 플라스틱은 해양동물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고 있고, 잘게 부서져 바닷속을 떠돌다가 먹이사슬을 타고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인간의 필요로 태어나서 돌고 돌아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는 플라스틱의 긴 여행을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인간과 플라스틱의 평화로운 공존에 대해 생각해본다.

#_2 플라스틱 다이어트

세상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플라스틱이 존재하고 우리는 플라스틱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앉는 것까지 이젠 플라스틱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플라스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현대 인류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플라스틱, 그 너머엔 정작 어떤 진실이 숨어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의 몸속에서는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비스페놀 A와 남성 생식기에 이상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라는 독성성분이 신생아에게서까지 발견되고 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우리 몸속에 이 독성성분들이 쌓이게 될까?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8명의 지원자가 100시간 동안 플라스틱만으로 제한된 식사와 생활을 하는 플라스틱 다이어트 실험을 진행했다. 과연 지원자들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실험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언제든 독성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현대인들이 플라스틱을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지도에는 없지만 존재하는 섬, 거대 쓰레기 섬 GPGP

태평양 위에 존재하는 거대 쓰레기 섬 GPGP(Great Pacific Garbage Patch)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997년 여름, 한 남자가 바다에서 힘겹게 요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LA부터 하와이까지 요트로 횡단하는 경기에 참가 중이던 찰스 무어인데요. 그가 요트를 타는 바다 아래에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수없이 떠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자 바다를 뒤덮고 있는 플라스틱들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게 바로 쓰레기 섬(GPGP)가 처음 발견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찰스 무어는 쓰레기 섬을 발견한 후 해양 환경오염 전문가가 되었으며, 2007년 폴리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어디서 온 쓰레기일까?

쓰레기들의 정체는 최근에 밝혀졌는데요. 비영리 연구 단체 오션클린업파운데이션이 세계 여러 과학자들과 3년간 GPGP를 추적해 2018년 3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섬을 이루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개수는 약 1조8,000억 개, 무게는 8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는 초대형 여객기 500대와 맞먹는 무게입니다. 미해양대가 2015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당시 450만톤에 가까운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었고, 그중 140만 톤은 바다까지 퍼져 북태평양을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GPGP내에서 쓰레기를 대량 수거해 부착된 라벨을 확인한 결과, 일본어가 30%, 중국어가 29.8%였습니다. 원산지 표기를 살펴보니 일본 제품이 34%로 가장 많았죠. 이 외에도 원산지 표시에서는 12개의 다른 언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 섬에 있는 쓰레기의 99%는 플라스틱이었는데요. 비닐봉투나 뚜껑, 일회용 컵은 물론이고 미세플라스틱도 섞여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지름이 5mm이하인 플라스틱 조각으로 처음부터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분해과정을 거쳐 일반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생물들에게 들어가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GPGP를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섬을 국가로?!

2017년 광고제작자 마이클 휴와 달데반스 알메이다는 UN에 GPGP를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명은 쓰레기 섬이라는 뜻의 'Trash Isle'이었는데요. 통화 역시 쓰레기라는 뜻의 Debris를 채택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쓰레기 섬의 규모는 프랑스 면적까지 이르렀으며 한 나라만한 거대한 쓰레기가 되었는데 이 일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면 계속적인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LADbible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청원을 진행하며 디자이너 마리오 커크스트라에게 이 나라의 여권, 지폐 그리고 우편 디자인을 의뢰했습니다. 이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해양오염 문제를 알리는 모습의 디자인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권에는 '우리를 필요로 한다(The Ocean Needs Us)'라는 슬로건이 새겨져 있으며, 중앙에는 바다 속으로 다이빙하는 고래가 그려진 방패가 있고 이를 바다사자와 거북이가 양 옆에서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토니 월슨이 담당한 쓰레기 섬의 지폐는 황폐한 바다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갈매기 목에는 6개의 탄산음료 포장 플라스틱이 끼어 있는 등 해양오염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 섬의 국민이 되기 위해 엘 고어 미국 전 부통령은 청원에 참여했고 쓰레기 섬의 1호 국민이 되어 여권도 제작했습니다.

쓰레기 섬 없앨 수 있을까?

오션클린업파운데이션의 창립자 보안 슬렛은 구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가 발명한 '떠다니는 장벽(floating barrier)'은 높이 3m, 길이 100m에 달하는 V자 울타리인데요. 쓰레기는 원형으로 순환하는 해류를 따라 돌다가 자연스레 울타리로 와서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울타리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들은 2020년까지 GPGP 둘레에 떠다니는 장벽을 설치해 막대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대서양, 인도양, 남태평양, 남대서양 환류가 흐르는 곳에 또 다른 쓰레기 섬이 4개 이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세플라스틱 섬은 상상 못할 속도로 더욱 커지게 되고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 블로그 발췌〉



1 우리 조상들은 좋은 집터의 조건으로 배산임수를 따졌습니다. 집 뒤에 산에서 딸감과 산나물을 얻고, 앞에 하천을 이용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민공리 정책에 따라 산림 공유제가 원칙이었고, 무주공산이라 하여 개인이 산림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 건강을 위해 생활권에 도시숲 면적을 1인당 최소 9㎡를 권고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1인당 20~30㎡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인당 평균 8.3㎡(산림청 조사) 수준에 불과합니다.



3 도시공원의 나무는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줄여주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빗물을 머금어 홍수 피해를 막고, 하천을 흐르게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여가를 보내는 쉼터이자 야생동물의 서식처입니다. 도시공원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모두가 누려야 하는 필수적인 공공재입니다.



4 우리나라는 70, 80년대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산들이 도시공원이란 이름으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가지 안의 구릉지는 근린공원으로, 도시 외곽의 산들은 도시자연공원이 되었습니다.



5 문제는 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국가의 땅 외에 단체, 학교, 개인의 땅도 포함했다는 겁니다. 토지소유자들은 권리를 주장하였고,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20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원일몰제의 시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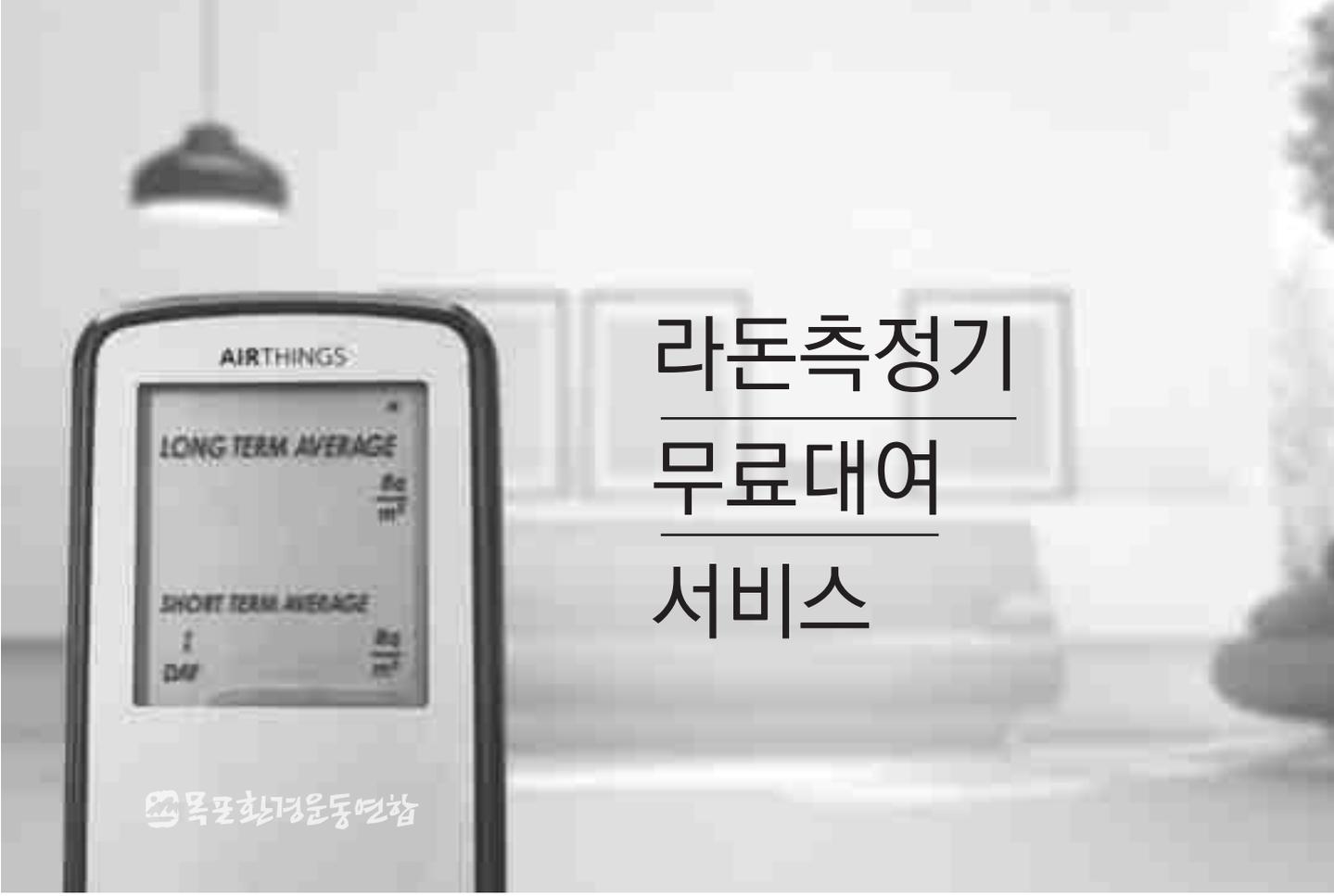
6 정부와 국회는 국가 소유의 땅은 계속 공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외의 땅은 국가가 사들이거나 보상해주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20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게 씁쓸한 사실입니다.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땅의 소유자가 용도를 변경하고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7 2020년 7월, 사라질 예정인 공원은 전국 4,421개, 전체 공원의 54%나 됩니다. 우리동네의 작은 공원들은 물론, 한국의 대표 명소인 남산, 관악산, 부산의 갈맷길에 있는 공원 등 주요 공원들도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앞으로 남은 시간은 1년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요청이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saveourparks.net에서 서명해 주시고,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회원과 시민 여러분 가정의 불안요소인 라돈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대여 방식

- ① 접수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오전9시~오후6시)
- ② 기간은 1박 2일(24시간)입니다.
- ③ 보증금은 무료이며, 환경관련 광고를 위해 1회 1천원의 대여비용이 있습니다.
- ④ 대여시 파손 방지와 책임에 관한 서명이 있습니다.
- ⑤ 대여와 반납은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 해주셔야 합니다.

대여 문의 010-8243-3169

❖ 민간공원특례제도는 사탕 바른 사약입니다

공원일몰제란?

공원에서 일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불합치 결정으로 촉발된 공원일몰제는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공원등)은 2020년 6월 30일 이후 해체 하는 것이 공원일몰제입니다. 매일 다니던 산책길, 운동하던 공간이 사유재산권 행사로 다닐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제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정부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2009년 국토부는 공원 일몰제 관련 대책으로 5만㎡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는 민간공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민간 건설회사가 주축이 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방식입니다.

민간공원특례제도의 문제점

민간공원제도는 전체 미집행 공원의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숲세권아파트(숲이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상품화 한 숲 인근 아파트) 개발로 수익성을 높일수 있는 일부 도시공원들을 사업자가 골라서 개발할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교통 접근성이 좋고, 노약자는 물론, 유모차도 다닐 수 있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해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원들이어서 다른 공원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상실감은 매우 큽니다.

70%의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처럼 포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30%의 비공원부지 역시 아파트 개발로 인한 공익과 사익의 크기와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 없거나 미미하고 대부분 개발업체의 수익구조만을 고려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2019년 입법운동(안)

1. 국공유지는 도시공원 영구 보전을 위한 일몰 제외
2.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구역 매수청구 등 부지매입비 50% 국고 지원
3. 도시공원일몰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시 원금의 50% 지원 및 상환기간 20년 연장허용
4. 도시자연공구역에 재산세 50%감면, 상속세 80% (일본사례)
5. 정부지자체의 장기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제 개편 및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
6.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종합대책과 예산확보를 위한 실효 3년 유예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이제부터 동네공원은 출입금지입니다.

동네 토박이 김씨 할아버지도

매일 밤낮으로 친구들과 뛰어오는 아이들도

반려견과 산책을 즐기던 사이좋은 부부도 이제 동네 공원에 갈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2020년부터 우리 동네에 공원이 사라집니다.

공원 대신 세워지는 아스팔트 건물

공원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건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이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공원부지에 걸린 개발 제한이 해제되면

2020년 7월부터 공원이 있던 자리에 출입금지 풋말이 세워지고

아파트나 빌디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역할을 했던 숲이 사라지게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인 도시공원, 도시공원의 위력은 수치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도시 부유먼지의 26%, 미세먼지의 42%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하는 도시공원은 말 그대로 도시의 자연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우리는 더 이상 숲을 통해 미세먼지를 막을수 없습니다.

숲이 사라지면 미세먼지의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전국 공원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사라질 예정인 공원은 모두 4,421개, 전체 공원의 54%입니다.

동네의 작은 공원들도, 한국의 대표 명소인 남산도

주말이면 등산객이 북적이는 관악산도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입니다.

**공원 일몰이 시작되면 다시 공원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정부는 공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원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먼저 지정하고 공원부지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입법촉구 서명하기

새롭게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김태근 추천 : 전양수, 김혜숙, 김보현, 박찬임, 김민주, 이재명, 김성민, 박창현, 김순미, 박종순, 전성철, 최지영, 윤인수, 곽용열, 박종수, 신용주

양승희 추천 : 손버리, 정윤정, 정 일, 이승희, 한인숙, 고광현

민경관 추천 : 이미순, 조재문, 정대일, 홍정우

최송춘 추천 : 박경봉, 최근욱, 김진숙, 최병삼

이현승 추천 : 이용기, 김애숙, 안정배

제갈경희 추천 : 김도관, 더오래들

임경숙 추천 : 노천우

김태웅 추천 : 신원식 조상현 추천 : 김학주

조원기 추천 : 최진상

자발적 가입 : 홍세영

자발적 증액 : 최현영(5,000원) 서병권(10,000원)

※ 지인을 소개하여 2명 이상 회원으로 가입하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좋은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아야
 좋은 세상이 옵니다**
 故 서한태 박사님 말씀 중에서

“

전라남도지정
 남도음식평가 **해빙.**

최영섭 회원

생산하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하는데 500년!!
플라스틱 빨대 NO!!

손현 회원

포마린

혼다V6 / 야마하 V6·V8 커맨드 링크 전문점

대표 **최은기**

T. 061-272-0118 / 010-9492-4707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220번길 21-11

편집디자인 및 인쇄 : 디자인공방/디자인그라운드 061) 287-0146, 010-3888-0145

| 목포환경운동연합 각 위원회에서 함께 할 회원님을 모십니다 |

**목포의
 강·하천을 맑게!!**

하수종말처리장 및 조선시설주변 갯벌 조사
 목포 강·하천 모니터링

**강하구위원회
 임성진** 위원장

010.5663.1598

**잿빛 도심에
 녹색 활력을!!**

도심 녹색 프로젝트(가로수, 공원 등)
 환경친화적 도시정책 연구 활동

**도시환경위원회
 제갈경희** 위원장

010.3326.3890

**바다와 갯벌을
 생명의 터전으로!!**

국가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목포연안 환경 수시 모니터링

**해양갯벌위원회
 조원기** 위원장

010.9079.2166